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

세종정책브리프

No. 2019-05
(2019.04.04)

Sejong Policy Brief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과 한국의 과제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jameschung@sejong.org

차례

핵심요약

Ⅰ. 문제제기

Ⅱ.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으로서 중국의 꿈(中國夢)과 강군의 꿈(強軍夢)

Ⅲ.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실현 가능할 것인가?

Ⅳ.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핵심 요약]

○ 중국은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 정책 성공을 통한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됨

○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2050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複興)과 중국의 꿈' 달성이라는 국정 슬로건을 제시하며 미국과 힘을 겨룰 수 있는 강대국 달성을 위해 부국(富國)과 강군(強軍)실현을 추진

○ 향후 중국은 2050년까지 중국특색사회주의 강대국 달성을 위해 자국이 직접 주도하는 새로운 역내 질서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대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주변국들에 대한 강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보상을 적절히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본격적인 강군(強軍)전략 차원에서 늦어도 2020년까지 기계화 및 정보화 달성, 2035년까지 군 현대화 이룩, 2050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로 자리매김한다는 중장기 군사전략 추진 청사진을 밝힘

○ 최근 중국은 새로운 강대국 관계개념인 평화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류문명공동체'와 '신형국제관계' 구축을 통해 2050년까지 강대국 전략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중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 역할을 확대시켜나간다는 중국 주도의 새로운 대외정책 추진을 밝힘

○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1인 지배체제의 권위를 확립한 이후 대내적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와 정치개혁 등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역내 패권경쟁에서도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중국의 강대국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함

○ 향후 한국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며 사드 이후 새로운 한중관계 구축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조기에 비핵화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대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중 간 정상대화와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문제 제기

❍ 지난 40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중국은 G2 수준의 강대국으로 도약했다는 강한 자신감과 국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꿈(中國夢)' 슬로건을 내세우며 새로운 질서 구축을 구체화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꿈'에 대해 첫째,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0년까지 중산계층의 평균소득이 국제 선진 표준에 이르는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둘째, 중국 건국 100주년 무렵인 2050년까지 부유하고 강하고 문명화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국가 건설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함

❍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2050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複興)과 중국의 꿈' 달성 이라는 국정 슬로건을 제시하며 미국과 힘을 겨룰 수 있는 역내 강대국 달성을 위해 부국(富國)과 강군(強軍)실현을 추진함

- 이미 시진핑 지도부는 대국(大國)보다 강국(強國)으로서 중국의 정체성 전환을 시도 중에 있음

❍ 2017년 10월 18일 열린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중장기 국정 계획을 밝히면서 2050년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대국을 실현시키겠다는 강한 포부와 의지를 제시한 이후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함[1)]

- 더욱이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2050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이라는 두 개의 백년(兩個一百年)전략을 제시함

❍ 이미 시진핑 지도부는 기존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순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중국만의 규범과 제도, 질서, 이념 등을 만들고 구축하면서 새로운 중국 중심 질서로의 변화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음

- 향후 중국은 2050년까지 중국특색사회주의 강대국 달성을 위해 자국이 직접 주도하는 새로운 중심의 역내 질서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대전략을

1) 2016년 11월 중국공산당이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핵심(核心) 지도자' 지위를 부여하여 사실상 1인 지배체제로 전환됨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주변국들에 대한 강한 압박(군사안보)과 경제적(무역통상) 보상을 적절히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2)]

- 더욱이 중국은 이데올로기, 경제력 격차, 문화차이 등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공동이익을 토대로 상호 공존하고 협력하는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를 주요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모델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음[3)]

○ 본 글에서는 시진핑 지도부가 제시한 중국의 대전략인 중국의 꿈과 강군의 꿈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역내 질서 변화 가능성 및 도전요인과 딜레마 등을 살펴보고자 함

- 특히 시진핑 지도부가 제시한 '중국의 꿈'이라는 대전략 추진은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중국 대내외 정세 분석과 함께 중국의 대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으로서 중국의 꿈(中國夢)과 강군의 꿈(強軍夢)

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複興)과 중국의 꿈(中國夢)

○ 시진핑 지도부가 제시한 '중국의 꿈'은 G2로 올라선 부강한 중국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 고취와 국민통합을 넘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우수성과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중화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음[4)]

- 특히 19차 당 대회에서 지속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강군의 꿈(強軍夢), 신창타이(新常態), 인류문명공동체, 신형국제관계 등을 강조하며 새로운 국가발전비전이자 강대국화 전략으로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 실현을 강조함

---

2) 현재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꿈' 실현은 과거 세계대전과 같은 무력적 대결이나 현존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급격한 변화와 파괴를 거치지 않으면서 미국 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점진적으로 중국 중심 체제로 변화를 추구한다는 구상임

3)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은 강한 경제적 자신감을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과 대외적 영향력 확대를 적극 추진함

4) 2012년 11월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취임 직후 공개연설을 통해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밝힘. 冷溶, "什麼是中國夢, 怎樣理解中國夢,"『人民日報』, 2013年 4月 26日.

○ 지난 2012년 11월 29일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 첫 번째 일정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을 대동하고 중국혁명역사박물관에서 중흥의 길(復興之路)이라는 특별 역사전시회를 돌아보면서 직접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 연설을 통해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방향을 제시함

- 당시 시진핑 주석은 구체적으로 '중국의 꿈'에 대해 부강한 중국,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인민의 행복 실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중심으로 단결하여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소강사회 달성)과 2049년 건국 100주년(사회주의 강대국)이라는 '두개의 백년(兩個一百年)' 국가전략 로드맵을 밝힘

<표-1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정책과제>

구분	단계	주요 정책 과제
↑	제3단계 (2049년)	- 중국의 꿈(中國夢)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複興) - 중국의 꿈은 중화주의와 왕도사상에 의거한 현대판 중화제국 건설을 의미하며 조공질서를 토대로 대국은 소국을 어질게 대해야 한다는 중화주의 전통관념과 개입/포용(Engagement)의 대동사상 개념 내포
	제2단계 (2035년)	- 성당(盛唐)시대의 찬란한 문명재현 -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명시대인 성당(盛唐: 당나라 전성기, 태종부터 현종까지 100년(626-741년)시대의 강대국 개념 내포
	제1단계 (2025년)	- 치욕의 세기에 서구와 일본에 강탈당한 실지(失地)회복과 재부상 - 치욕의 세기(1차 아편전쟁(1840-42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949년)까지 100여년 기간을 의미)에서 벗어나 재부상 개념 내포

출처: 필자가 재구성

○ 시진핑 지도부의 강대국화 전략은 '인류문명공동체'와 '신형국제관계'로 요약이 가능하며 이는 새로운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 비전으로 인류문명공동체 실현은 '상호존중(相互尊重), 공평정의(公平正義), 협력원윈(合作共贏)'이며 신형국제관계는 상호 평등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향함[5]

5)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중국 특색 대국 외교'는 과거 서구 강대국들이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상호 반목하여 기존 패권국과 신흥부상국이 종종 전쟁으로 치달았던 역사와는 차별되는 중국 특색 외교로 설명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19차 당 대회를 통해 '신형국제관계'와 '인류문명공동체'로 구체화 됨

- 중국이 구상 중인 인류문명공동체와 신형국제관계는 지난 18차 당 대회에서 강조했던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토대로 주변국 외교, 개도국 외교, 다자외교, 공공외교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중국 특색 대국 외교'가 대국외교, 주변외교, 개도국외교, 다자외교, 공공외교 순서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반하여 신형국제관계에서는 모두 대내외적 상황에 유연하게 맞추어 추진한다는 구상임

○ 향후 '중국의 꿈'은 경제력과 군사력 확대 등을 통해 미국과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중국식 강대국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시도하며 중국적 특색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임

- 시진핑 지도부의 강대국화 전략 핵심인 '중국의 꿈 실현과 중화민족 위대한 중흥'은 과거 중화제국 시대(Pax Sinica)의 영광을 재현하는 중화민족주의 부활 메시지가 강하게 투영되어 나타남[6)]

※ 현재 시진핑 지도부가 제시한 중국의 꿈은 매우 포괄적이고 원대한 국가대전략으로 어느 누구도 논쟁 없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개념이자 중국이 그리는 강대국화 전략의 밑그림을 보여줌

○ 최근 시진핑 지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중국 특색 대국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핵문제 등과 같은 국제적 이슈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책임지는 대국 역할과 자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수호를 더욱 강조함[7)]

- 구체적으로 중국특색대국외교는 "중국적 특색(中國特色), 중국적 풍격(中國風格), 중국적 패기(中國霸氣)"를 토대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인류문명공동체를 실현시켜 나간다는 전략목표를 내놓고 있으며 달성목표로 '평화와 발전(和平發展)', 주요 원칙으로 '협력과 공동이익(合作共贏)', 추진수단으로 '동반자 관계건설(建設夥伴關系)', 가치방향으로 '정확한 의리관(正確議利觀)'을 제시함

○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은 대외정책에서 구체화되고 있으며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실력을 가능한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에서 분발유의(奮發有爲: 적극적으로 분발하여 성과를 이루어 낸다)로 전환됨

---

6)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까지를 서구 제국주의 침략에 굴복했던 "100여년의 굴욕과 치욕"으로 보고 있어 중국의 꿈은 100여년의 역사적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금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강대국으로 부활하고자 하는 주된 원동력으로 볼 수 있음

7) "王毅外長, 大國與其說領導不如講責任 ,"『人民日報』, 2017年 3月 8日.

- 이미 2014년 11월 당 중앙외사업무회의에서 '중국특색대국외교(中國特色大國外交)'를 제시하며 새로운 중국 중심의 역내질서 구축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존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전략에서 벗어나 인류문명공동체, 신형국제관계, 일대일로 등을 추진함

나. '강군의 꿈(強軍夢)'실현을 통한 강대국화 전략

○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꿈은 강국몽(強國夢)이고 군에 있어서는 강군몽(強軍夢)이며, 강대한 군대가 없다면 공고한 국방도 있을 수 없으며, 강국몽 역시 실현할 수 없을 것" 이라며 강력한 힘의 추구인 강군 건설을 강조함

- 이미 19차 당 대회를 계기로 중국은 본격적인 강군(強軍)전략 차원에서 늦어도 2020년까지 기계화 및 정보화 달성, 2035년까지 군 현대화 이룩, 2050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로 자리매김한다는 중장기 군사전략 추진 청사진을 밝힘

○ 최근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의 대중포위전략 대응과 강군 육성 차원에서 ① 미국과 신형대국관계 강조, ② 주변국가들과 무력분쟁 대비 및 전투형 군제개편, ③ 국가주권과 안보를 적극 수호하는 차원에서 비대칭 무기 개발(정보, 사이버, 우주, 미사일 등) 및 원거리 투사능력 확보(핵항모 추가 건조 등)등을 추진하기 시작함

- 특히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특색 강군의 길 견지, 국방과 군대 현대화 전면 추진"으로 신시대에 맞는 강군 건설, 중국 특색의 현대화 작전체계 구축, 싸워서 이기는 강한 군대, 군민융합(軍民融合)을 역설하며 단지 경제적으로 부강한 중국이 아닌 2050년까지 역내 군사대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질서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임[8)]

○ 현재 중국의 군사안보전략은 '신형세하의 적극방어군사전략(新形勢下積極防禦軍事戰略)'으로 여기에서 '신형세'란 미국주도의 역내 대중 군사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적극방어'란 기본적으로 방어태세를 유지하다 적이 공격해 오면 단호히 반격을 가한다는 '후발제인(後發制人)'개념을 의미함

8) 중국의 군민융합 발전전략은 군비지출의 확대를 유도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의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와 상당히 유사하나 국방부와 기업의 전략적 제휴로 설명되는 미국과는 달리 국가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첨단무기 현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은 대만, 한반도, 동/남중국해 등 주변지역에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될 경우 선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으나 상대방(미국과 일본 등)이 먼저 군사적 분쟁을 야기한다면 매우 빠른 속도로 강력히 대응하여 신속한 승리를 거두고 소기의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군사전략을 세우고 있음

○ 2030년까지 중국군은 제한적 국지전 수행능력에서 전역급 작전능력 확보를 위해 늦어도 2025년까지 군 정보화와 첨단화 달성, 반(反)접근 지역거부능력(A2/AD)강화 등과 같은 중국군 현대화 제고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을 세움

- 이미 중국군은 정밀타격무기배치와 증강, 핵 억제력 및 원거리 공정작전 능력 강화, 항공모함 및 핵잠수함 추가건조,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J-20, F-31C) 및 전략핵폭격기(젠홍-7)도입, 둥펑(DF)계열 신형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증강, 우주/사이버전 전력 강화, 조기경보 및 공중통제능력 확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둠[9)]

○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 무력화 및 역내 패권국 지위 확보 차원에서 중국군은 첨단 군사기술로 무장한 현대화된 군대 달성을 위해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전략무기(중장거리 핵·미사일) 현대화, 비대칭 무기 강화, 신속대응작전능력, 정보전(IO/IW), 군수지원 능력 분야를 중심으로 상당한 물적·인적 투자가 이루어짐

- 시진핑 지도부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 차원에서 소규모 국지전 수행 전담부대를 신설하고 전쟁 이외 군사작전(MOOTW) 및 사이버전 능력 강화, 특수부대 및 해군육전대(해병대)를 대폭 증원시킴

○ 최근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강대국화는 군사력 분야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약 1,100억불로 미국(약 6,800억불)의 1/6 수준이나 2016년에는 미국 국방비(약 5,960억불)절반 수준인 2,150억불에 달해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된 국방비 증가수치를 보여줌[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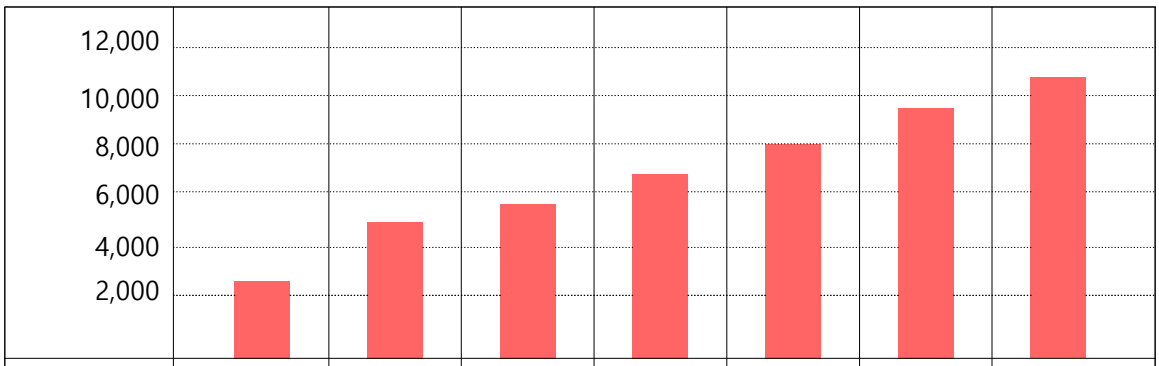
9) 현재 중국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13척, 재래식 잠수함 57척, 방공구축함 16척을 포함한 수상전투함 82척, 상륙함 90여척에서 2020년까지 351척까지 함정수를 늘리고 중국 공군도 러시아제 Su-30MKK, 중국제 Su-27인 J-11 370여대, J-10 전투기 240여대, 전략폭격기 90여대에 더해 첨단 스텔스 전투기(J-20, F-31C), 전략 핵폭격기 등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임

10)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2015년 10.1-12.2%, 2016-2018년 7.0-8.0% 비율로 급속도로 성장하여 중국의 국방비는 이제 미국에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함

- 특히 시진핑 주석은 강한 중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력 못지않게 정치강군, 개혁강군, 과학기술 흥군, 법치강군을 통한 국방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면서 국방예산을 2017년도 대비 8.1% 늘어난 1조1,289억 위안(약 192조8,000억 원)으로 책정함[11)]

※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4년 12.2%에서 2015년 10.1%, 2016년 7.6%, 2017년 7.0%로 내림세를 보여 왔으나 군사비의 전체총액은 지난해 1조 443억 위안을 넘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수준까지 도달함[12)]

<표-2 중국의 국방비 증가 현황(2006-2018년)>



예산(억위안)	2,807 (약410억불)	4,718	5,191	6,503	8,082	9,543	11,289 (약1,651억불)
연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London: Routledge) 해당 연도판

❍ 19차 당 대회에서 2050년까지 군사강국 실현을 밝힌 이후 항공모함 및 첨단 구축함 건조와 첨단 스텔스 전투기 양산,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개량 및 추가생산, 항공우주개발 및 항법위성체계 구축, 전자-사이버능력 강화 등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어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임

- 더욱이 2018년 3월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보고에서 "국방 및 군대 건설에서 시진핑 주석의 강군사상을 토대로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

11) 지난 2018년 국방예산 증가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지도부는 2017년 10월 열린 19차 당 대회에서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고, 해군과 공군 전력증강 및 사이버작전, 우주개발 등에 막대한 물적 투자가 결정됨. 『人民網』, 2018年 3月 15日.

12) 2006년 중국국방예산 약 410억불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약 1,651억불로 약 4배 가까이 늘어남

○ 향후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군을 강화해 나갈 필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임무와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 무기 및 장비 규모와 구조를 최적화하고 개발해야 하는 필요 차원에서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이 예상됨

- 중국은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장비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육·해·공군, 우주·정보·사이버전, 민군합동능력을 확보하여 적어도 2050년까지는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싸워서 이기는 세계일류군대(能打仗、打勝仗)로 거듭난다는 전략적 청사진을 제시함

○ 19차 당 대회에서 2050년까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을 중장기 국가대전략으로 제시하면서 과거와 달리 각종 주변국 분쟁 등에 개입하고 영향력 확대를 본격화하기 시작함

- 그동안 중국은 주변국 안정을 위해 전쟁 혹은 분쟁의 억제(deterrence)에 주안을 두어왔으나 자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수호차원에서 강압(coercion)적 전쟁수행(warfighting)능력을 적극 제고시켜 나가고 있음

○ 시진핑 지도부 2기 출범 이후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일대일로 추진, 신형국제관계 구축 등 이전에 비해 훨씬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밝히고 있어 중국군의 해외 군사 활동도 제3세계(아프리카, 서남·동남아시아, 중동지역 등)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13)]

- 따라서 최근 중국은 자국의 확대된 이익(해외시장, 석유·가스, 자원 등) 및 해외거주 중국인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해 2020년까지 해군(해군육전대 포함)을 약 23만여 명에서 30만 명으로 증강하기로 결정하는 등 과거와 달리 자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함[14)]

○ 중국군은 해외 이익 수호 및 새로운 차원의 안보위협(국지전, 해적, 테러위협 등)에 대비하고자 첨단무기체계에 기반하고 신속한 군 작전대응을 목표로 하는 정보화 국부전 연합작전(信息化局部戰爭聯合作戰)을 통해 대외 영향력 및 해외 군사력 투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이미 중국군은 시진핑 지도부의 '강군의 꿈' 강조 이후 군 현대화와 지휘통제체계 정보화, 신속한 반격 테러전 및 소규모 국부전 대응, 역외군사투사능력 활성화, 연합합동작전능력 강화, 전자통신 및 첨단 네트워크 구축 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둠

---

13) 중국은 영향력 확대차원에서 역외 투사능력 강화 및 경제이익 보호,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 중국군 파견 및 연합훈련 실시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벌이고 있음

14) 중국은 일대일로의 원활한 추진 및 군사력 확장 전략 하에 해군육군전대(해병) 2개 여단, 2만 여명에서 5-6개 여단을 증강하였고 독립적인 해군육전대 연합지휘작전센터를 설립함

○ 최근 중국은 강대국 지위와 핵심이익(core interest)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면서 우호적이고 힘의 투사가 가능한 국가들(예컨대 북한, 파키스탄, 중앙·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 제창하는 공동안보(共同安全)와 신안보관(新安全觀)제시, 인류문명공동체 건설,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 등을 통해 중국 주도의 새로운 역내질서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힘

- 한편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 역내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강국의 꿈은 강군의 꿈이라 규정하면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의 손으로' 라는 중국 주도의 새로운 역내 질서를 제시하며 일대일로, RCEP, AIIB 구축을 본격화하기 시작함

3.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실현 가능할 것인가?

가.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과 새로운 질서 모색 본격화

○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설계한 덩샤오핑(鄧小平)주석은 1979년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당시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중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현대화는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 설명하였으며, 장쩌민은 1997년 열린 15차 당 대회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 샤오캉 사회 건설, 신 중국 수립 100주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완료할 것" 을 국가 달성 목표로 제시함

- 더욱이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전체 경제규모는 일본을 넘어 세계 2위로 올라섰고 국방비 역시 2009년부터 세계 2위의 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 자국의 부상과 강대국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함[15)]

○ 현재 시진핑 지도부의 강대국화 전략 핵심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의 꿈' 달성으로 두 개의 백년(两个百年)이 완성되는 2050년까지 역내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힌 이상 새로운 중국 중심 질서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됨

- 즉 대내적으로 시진핑 1인 지배체제 정당성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강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구식 국가발전 모델이 아닌 중국특색의 새로운 사회주의 길을 모색하고 추진하기 시작함

15)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장쩌민은 '삼개대표론'을, 후진타오는 '과학발전관'을, 시진핑은 '중국의 꿈'을 제시하며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공산당 집권 필요성과 강한 자신감을 표출함

○ 최근 시진핑 지도부는 국가 정체성을 발전도상국에서 강대국으로 전환하고 샤프 파워(sharp power)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2050년까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강한 의지 표명과 목표를 밝힘[16)]

- 이처럼 시진핑 지도부가 새로운 목표를 추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 매우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역량(경제력과 군사력), 둘째,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중국의 상대적 자신감(국력) 상승, 셋째, 중화 민족주의 자부심을 지닌 강력한 리더십(시진핑 주석) 등장이 함께 맞물리면서 나타남

○ 이미 중국은 새로운 강대국 관계개념인 평화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류문명공동체와 신형국제관계구축을 통해 2050년까지 중국의 꿈으로 개념화된 강대국 전략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중임

- 특히 19차 당 대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공식화된 중국의 대전략 구상을 공식화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강대국을 실현하여 역내 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전략적 구상과 강한 의지를 보여줌[17)]

○ 향후 시진핑 지도부의 국가 대전략에 있어 핵심 키워드는 '신형국제관계'와 '인류문명공동체'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 역할을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assertive) 대외정책 추진을 시사하고 있음

○ 중국은 신형국제관계와 인류문명공동체의 두 개의 구축을 위한 중점 실행 전략으로 일대일로와 글로벌 거버넌스(全球治理)체제 개혁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국제질서의 점진적 변혁 시도 및 개혁보완을 모색함

- 이를 위해 시진핑 지도부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동반자관계와 주변외교를 더욱 발전시키고 '친(親)-성(誠)-혜(惠)-용(容)'대외정책이념 및 주변국 외교방침(與鄰爲善,以鄰爲伴: 이웃 국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동반자 관계 구축)에 의거 중국이 주도하고 구상하는 대외정책 추진을 본격화함

---

16) '샤프 파워(sharp power)'는 '하드파워' 혹은 '소프트 파워'와 구별되는 것으로 회유와 협박은 물론 교묘한 여론조작 등을 통해 행사하는 영향력으로 '소프트 파워'가 상대를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인 것에 반해 '샤프 파워'는 막대한 음성 자금, 경제적 영향력, 여론유인, 매수, 강압 등을 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여 상대로 하여금 강제로 따르게 하는 파워를 의미함.

17) 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 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中國共産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的報告』, 2017年 10月 18日.

○ 현재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핵심은 과거 냉전적 강권정치를 벗어난 대결이 아닌 대화, 동맹이 아닌 동반자로서 새로운 중국식의 길(中國道路), 중국의 방안(中國方案), 중국의 지혜(中國智慧)를 적극 발휘하여 중국 주도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제시하고 추구함

- 19차 당 대회에서 왕이(王毅)외교부장은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목표와 전략으로 "신형국제관계 및 신형대국관계 건설을 통한 인류문명공동체의 구축"을 강조하며 인류사회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공헌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18)]

나.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에 따른 미중패권경쟁

○ 지난 40년간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 쇠퇴론에 힘입어 중국은 줄곧 미국이 주도해온 단극적 국제질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역내 질서 변화의 필요성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해 미중간 무역전쟁 등이 촉발되면서 본격적인 역내 패권경쟁이 본격화됨[19)]

- 이미 중국은 2010년 GDP 기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2013년에는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대 무역국 반열에 들어섰으며 이어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약 3조500억 달러)이고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며 군사비 지출규모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라섬[20)]

○ 현재 미중 패권경쟁구도는 치욕의 1세기(百年國恥)로 대표되는 아편전쟁 이후 중국 근현대사에 뿌리를 둔 서구사회에 대한 강한 내부적 반감 및 피해의식,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미국의 헤징전략(hedging strategy), 그리고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대내외 정치·경제·외교안보요인 등이 얽혀 있어 미중사이의 전략적 경쟁은 일시적인 갈등 국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역사적, 대내외 전략적 요인들이 합쳐진 미중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음

---

18) "王毅談新時代中國特色大國外交總目標: 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中國政府網』, 2017年 10月 25日.

19)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내놓은 세계질서 전망보고서인 'Global Trends 2025'에 따르면 2025년까지 국제질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행위자 등장과 함께 세계화로 인한 경제발전,인구증가, 지역발전 격차 등으로 인해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여전히 확보하겠으나 지금보다는 '덜 지배적인 국가'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함

20) 청화대학 옌쉐통(閻學通) 교수는 대략 2023년경 되면 중국의 전체 GDP가 미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군사력, 기술력, 문화력 등과 같은 영역은 미국에 뒤쳐져 있을 것이나 미국 역시 대내외 각종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발전이 정체될 것으로 내다봄

- 최근 나타난 미중 패권 갈등은 중국의 부상이 시진핑 시기 들어오면서 협의에서 광의로의 부상으로 의미가 확연히 변화된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어 역내 패권 주도권을 놓고 미중간 경쟁과 갈등이 상당히 긴 시간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영함[21]

○ 최근 시진핑 2기 지도부는 강대국화 전략 추진 차원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중국의 역할을 기존 '참여자에서 기획 주도자(策劃者)'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봉쇄전략을 무력화시켜 나간다는 구상을 밝힘[22]

- 한편 중국 內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시진핑 지도부가 제시한 신형국제관계 및 인류문명공동체 개념 등을 미국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략 가속화, 아태판 나토(NATO)동맹 구축 등을 시도해 나갈 경우 미중간 전략적 대립과 경쟁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냄

○ 최근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주동적인 자세를 취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나가고 있어 향후 미국의 대중정책 변화 가능성에 따라 미중관계 유동성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임

- 특히 19차 당 대회에서 강한 중국의 꿈을 제시하며 마오쩌둥(毛澤東)이후 사실상 가장 강력한 1인 권력을 보유한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INF(중거리 핵전력)탈퇴와 새로운 역내 미사일 방어망(MD) 구축, 우주군 창설, 사이버전 능력 강화, 인도-태평양전략 본격화는 가장 심각한 외교-안보적 도전일 수밖에 없어 미중간 경쟁과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중국의 주요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군사력, 첨단기술력, 소프트 파워 방면에서 국력격차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존 '일초다강' 국제질서는 점차 약화되고 '양초다강(兩超多強: 미중 강대국 중심시대)' 시대로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함[23]

---

21) 시진핑 지도부의 대미전략 기조는 신형대국관계를 중심 키워드로 하며 '평화와 발전' 지속과 책임대국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핵심이익(core interest)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의지를 보여줌

22) 李智, "習近平的外交智囊:中國從參與者到策劃者,"『中國網』, 2017年 12月 29日.

23) 시진핑 주석의 외교안보 주요책사로 알려진 청화대학 옌쉐통(閻學通) 교수는 향후 국제질서는 다극화가 아닌 미중 양극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더 이상 도광양회에서 벗어나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차원의 분발유위(奮發有爲)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은 1인 지배체제 권위를 확립한 이후 대내적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와 정치개혁 등을 성공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보다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특히 중국은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맞서 제로섬(zero-sum) 사고를 배제하고 충돌과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절대안보(絶對安全)를 추구하지 않으며 미국과 보다 대등한 양국관계설정을 위해 공동안보(共同安全)에 기초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새로운 미중 강대국 관계)구축을 제시함

※ 시진핑 지도부가 새로운 대미관계 구축을 위해 제시한 신형대국관계는 첫째, 강대국관계에서 대립과 충돌(不沖突、不對抗) 회피, 둘째, 상호존중에 기반하며(相互尊重), 셋째, 상호협력을 통한 이익추구(合作共贏)을 지향한다는 내용으로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을 미국이 인정해주면 미중간 협력과 공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임

○ 2018년 7월부터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도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닌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강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대중전략을 알리는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꿈'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확연히 달라진 미중관계 변화를 보여줌[24]

-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무역장벽 일부 철회, 미국산 물품 구매 등)함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미중간 전략적 경쟁과 갈등을 알리는 것으로 적어도 미국 대통령 선거,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 대만 총통선거가 있는 2020년 전까지 미중간 갈등과 대립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25]

○ 최근 시진핑 지도부가 '두개의 백년(兩個一百年)'을 통한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군사력 현대화와 일대일로(一帶一路)추진을 본격화하자 미국 역시 대중 전략 차원에서 미중무역전쟁 발발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으며 전 방위적으로 경쟁과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함[26]

閻學通, "外交轉型 , 利益排序與大國崛起,"『戰略決策研究』, 2017年 第3期.

24)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싸우길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中方不希望打貿易戰,但絶不害怕貿易戰)"고 공식선언 이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본격적으로 응전하기 시작함. "中美貿易戰,中國做好了打持久戰的一切准備,"『人民網』2018年8月20日.

25) 현재 미중분쟁과 갈등은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립국이자 주도국인 미국이 보다 대담하게 대중 압박과 공세를 취하고 있어 미중 모두 퇴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데올로기적 대립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갈등과 대립이 더욱 확대되기 시작함

- 향후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미국 주도의 기존 역내 질서에 대한 현상타파세력으로 상정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경우 역내지역에서 지정학적 군사충돌 혹은 역내 국가들 간에 대리(代理)세력경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표-3 미중간 상호 인식 및 전략방향>

구분		중국의 대미 인식	
미국의 대중 인식	전략	분발유위(奮發有爲)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적 경쟁자	**패권경쟁** 미중 격돌, 무역전쟁, 규범전쟁, 신 냉전 출현	**팍스 아메리카나** US Primacy, 미국 우위, 중국 열세
	전략적 동반자	**차이나 챌린지** 중국 우세 미국의 열세(혹은 방임)	**팍스 콘체르토** 상호 관여와 존중 협력적 공존

출처: 필자가 재구성

❍ 2017년 12월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에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더 이상 테러가 아닌 중국을 지목하며 현상타파세력 및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였고 이어 2018년 10월4일 마이크 펜스(Mike Pence)미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연설에서 중국을 미국이 직면한 현실의 적으로 간주하며 신냉전 구축에 정당성을 부여함[27]

- 특히 과거와 달리 미국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경쟁적인 공화·민주 양당이 대중 정책에 큰 흐름에서 인식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미국에게 있어 중국은 더 이상 부상하는(emerging)위협이 아닌 실제 위협이자 도전하는(erupting) 국가로 대중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미중간 경쟁과 갈등이 확산되기 시작함[28]

26) 2017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함

27) Mike Pence, "Remarks by Vice President Pence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October 4, 2018).

28) 미국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국내정치에 개입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구자들을 회유.협박하여 기술탈취를 시도하였고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로봇공학,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의 90%를 장악하여 미국의 전 세계 경제적 리더십에 도전하고 있다고 중국의 각종 불법행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대중 강경정책을 시사함

○ 향후 미중관계는 역내 패권 경쟁차원과 이익 환원 차원에서 전략적 변용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쟁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역내 패권을 놓고 다양한 시도와 힘겨루기를 벌이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어느 일방이 주도하는 질서로 형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중 공동관리 질서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음

다.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

(1) 대내적 요인

○ 2016년 10월 당 18차 6중 전회에서 후진타오 시기에 사라진 당의 '핵심(核心)' 지위를 시진핑 총서기에 부여하고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국가주석의 재임 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사실상 집단지도체제에서 시진핑 1인 지배체제로 전환됨

- 즉 덩샤오핑 사후 약 20여 년 간 중국공산당을 이끌었던 집단지도체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중국의 꿈'을 내세운 시진핑 1인 지배체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대내외적으로 1인 통치 정당성에 상당한 도전과 반발이 예상됨

○ 중국의 꿈 실현을 통한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은 중화민족주의 색채가 매우 강하게 투명되어 있어 자칫 '양날의 칼'로 작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시진핑 지도부가 강조한 중화민족주의는 사회주의 이념을 더욱 공고화하여 민족적 자긍심 고취를 통한 민족대통합과 공산당 통치안정을 모색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집단행동의 공간을 열어줌으로써 기층에서 각종 사회 불만요인들이 극단적 사회저항운동으로 분출될 가능성도 존재함

○ 19차 당 대회에서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직접 명시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새로운 당-국가 통치이념으로 확정되면서 1인 지배체제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함[29]

29) 19차 당 대회에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공산당의 영도 없이 '중국 꿈' 실현은 불가능하며 모든 당원은 당의 이념과 지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당의 지시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힘

- 이로 인해 공산당 반부패 운동, 8항 규정, 사상 통제 등이 당 중앙부터 일반 대중에 이르기 까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다양성 추구 및 시장화 개혁 추진, 대외개방, 외자유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30]

(2) 대외적 요인

○ 시진핑 지도부가 강대국화 전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서구세계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위협론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함

- 더욱이 시진핑 지도부가 내세운 '중국의 꿈'을 통한 중화민족의 부흥이 기존의 서구적 보편규범, 제도 등과 다른 중국식 권위주의적, 민족주의적 가치, 규범, 질서 등을 강조하고 있어 중국과 서구세계와의 관계가 화합보다는 갈등으로 확대됨

○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본격화하며 영향력 확대를 통한 역내 질서 변화를 도모하기 시작하자 미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까지 확대하며 중국의 강대국화를 억제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줌

- 이미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경제-안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INF(중거리 핵전력)협정 탈퇴, 핵무기 현대화, MD(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우주군 설립, 사이버 전투 능력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적극 맞대응하고 있어 미중 간 군비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음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 1인 지배체제가 구축되었으며, 2050년까지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적 구상과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 향후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정치, 경제, 안보적 갈등이 확대될 수 있음

---

30) 2013년 4월 중국공산당은 「당면한 이데올로기 영역의 현황에 관한 통보(關於當前意識形態領域情況的通報)」라는 제목의 '당 중앙 제9호 문건'을 하달하고 모든 당원에게 학습을 지시한 바 동 문건의 내용은 당의 통치를 약화하는 일곱 가지 위험 사조로 "서구식 입헌민주주의, 보편적 인권 가치, 신자유주의식 경제이념, 언론독립, 시민사회, 당의 역사에 대한 허무주의, 개혁개방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적 인식"을 거론함

- 이미 대만 및 동/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부개입 불허 입장 천명, 핵심이익의 레드라인(red line) 제시, 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AIIB) 설립, 일대일로 추진 등으로 게임 참여자(game player)에서 게임 주도자(game maker)로 중국의 역할 변화가 구체화되어 나타남

○ 본격적인 미중 경쟁과 갈등에 따라 향후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질서는 ① 규범과 가치공유에 입각한 동아시아 공동체 질서 도래, ②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 유지, ③ 위계적인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 ④ 세력균형 질서(Concert of Sino-US), ⑤ 미중 전략경쟁의 혼돈상황 지속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물론 미중 양국은 상호간 완전히 파괴하는 핵전쟁 같은 극단적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나 적어도 냉전시기와 유사한 이데올로기 블록 형성, 지구적 글로벌 거버넌스 및 체제경쟁 등과 같은 신 냉전 출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향후 미국은 정치·경제·군사적 수단 등을 총동원하여 대중 견제와 기존 역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중국은 새로운 역내 질서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강대국화 전략을 가속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이로 인해 한국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매우 풀기 어려운 숙제 혹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안보적으로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미중관계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한국으로서는 너무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향후 미중 무역전쟁,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과 같은 패권경쟁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에 있어 보다 균형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강대국화 추진차원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AIIB, RCEP, 적극 추진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안보적 우려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3자동맹만을 강조한다면 한중관계에 상당한 경제-안보적 도전이 될 수 있음

-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일방적 대북제재 강조, 대북 PSI 가능성, 북한 인권문제 제기, 미중무역전쟁과 INF 탈퇴 등과 함께 맞물려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지 위해 한중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함

○ 시진핑 지도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해 미국의 INF(중거리 핵전력) 탈퇴에 따른 역내 핵 군비경쟁 출현 방지 및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대중 포위구도를 견제해 나갈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 지도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도 존재함

○ 현재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일방적인 先비핵화-後보상조치, FFV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해결방식을 반대하며 중국식 해결방안인 단계적 접근과 동시적 조치인 쌍궤병행(雙軌竝行)을 강조하고 있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은 높지 않음

- 특히 4차 북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유관 당사국들이 북한의 합리적 우려와 관심에 반응하여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 지도부는 올해 북중수교 70주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북중관계 발전' 강조하고 있음

- 만약 가까운 시일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면 이를 계기로 북중관계는 한층 더 공고화해 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 한국, 러시아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새로운 다자간 협상구도(6자회담)를 제기하며 중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켜 나간다는 구상임

-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뿐만 다른 지역의 우라늄농축시설과 중장거리 미사일 및 핵탄두 폐기까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미국과의 빅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향후 한국정부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드 이후 새로운 한중관계 구축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이를 위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조기에 비핵화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대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중 정상대화 조속한 개최 및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jong.org 문 의: public@sejong.org
『세종정책브리프』에 게진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